

정해영, 위기의 마운드에 희망을 던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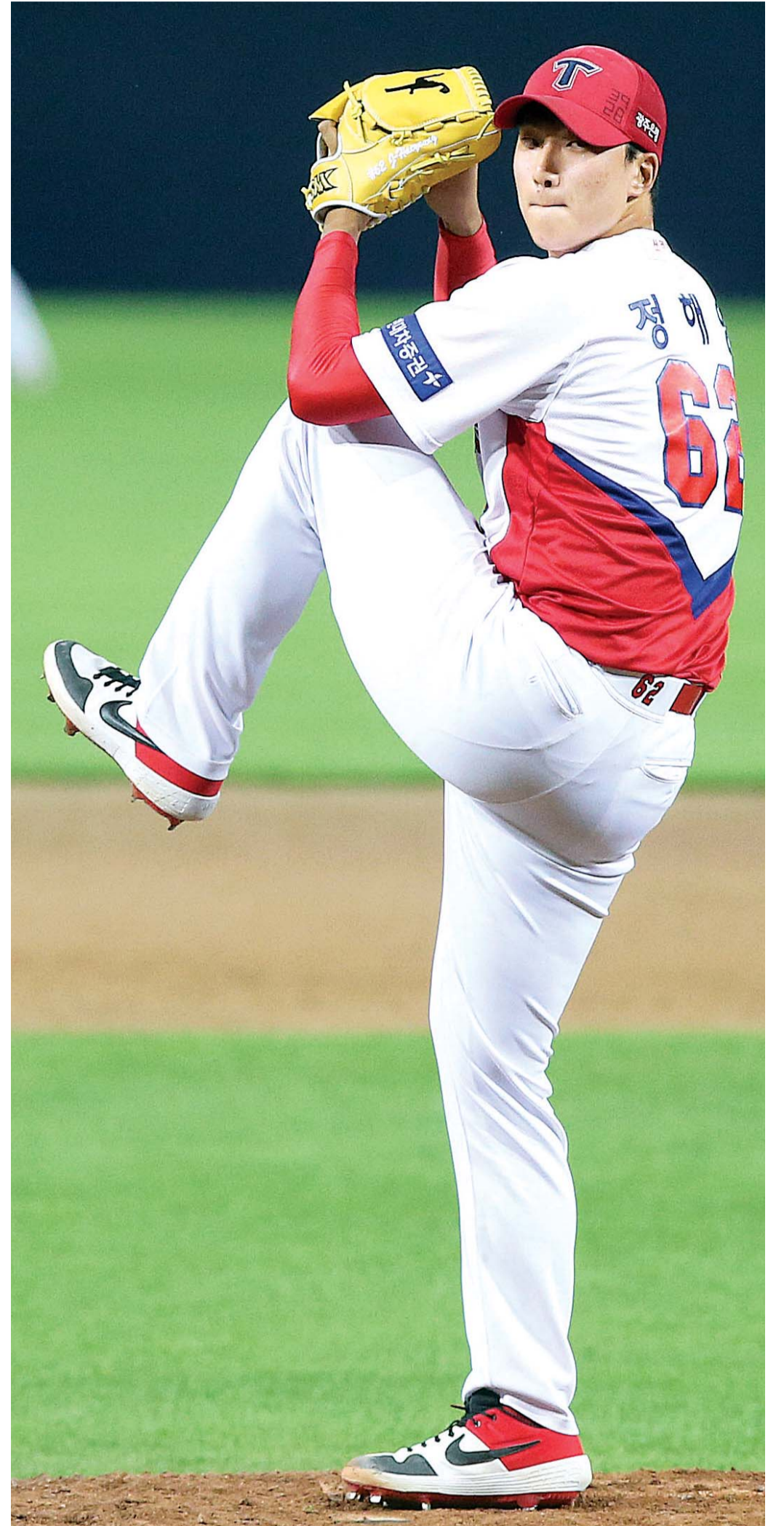


광주일고 출신 ... 지난해 우선 지명으로 KIA 유니폼
지난달 신인 중 가장 빨리 1군 콜업...1일 한화전에서 데뷔승
NC·KT전 호투하며 활약...윌리엄스 감독 "기회 많을 것"

'아기호랑이' 정해영이 위기의 마운드에 빛이 되고 있다.
광주일고 출신 정해영은 우선 지명 선수로 올 시즌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고졸 루키'다.
지난 6월 25일 올 시즌 신인 선수 중 가장 먼저 1군 콜업을 받은 정해영은 1일 한화와의 경기를 통해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정해영은 이날 1-3으로 뒤진 9회초 등판해 1이닝 무실점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첫 타자 정은원에게 볼넷은 내줬지만 병살타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동시에 올렸고, 김태균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9회말 KIA가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정해영은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프로 첫발을 내디딘 정해영은 4일 '선두' NC와의 원정경기에서 두 번째 출격했다. 2-9로 뒤진 8회말 등판해 1이닝을 1피안타 1탈삼진으로 처리하며 불펜 부담을 줄여줬다.
8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는 가장 긴 이닝을 소

화했다.
3-6으로 뒤진 7회초 2사 1루에서 홍상삼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은 4번타자 강백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정리했다.
8회에도 탈삼진 하나를 추가하는 등 삼자범퇴. 9회초 선두타자 장성우에게 140km 직구를 강타당하며 솔로포는 허용했지만, 심우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고 세 번째 등판을 마무리했다.
27개의 공을 던진 정해영의 기록은 1.2이닝 1피안타(피홈런) 3탈삼진 1실점.
윌리엄스 감독은 "흠뻑 맞았던 공 하나 빼고는 좋았다. 인상적이었다"며 8일 등판을 평가했다.
1이닝씩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던 윌리엄스 감독은 정해영이 연달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또 다른 기회를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정해영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직구와 커맨드(제구)가 좋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프로무대 연착륙에 성공한 정해영은 "아직 긴장

은 된다"면서도 "일단 초구 스트라이크 잡으면서 자신 있게 들어가고 있다. 2군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폼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2군에서 철저하게 프로 데뷔 준비를 하고 온 정해영에게 1군에 있는 경쟁한 선배들을 보는 것도 큰 공부다.
정해영은 "형들 던지는 것 보고, 코치님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다.
안정된 제구를 보여주는 정해영은 스피드 우려도 털어냈다. 올 시즌 정해영의 최고 스피드는 147km. 앞으로 속제는 '변화'다.
정해영은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고 있다. 훈련 시간에는 스피리터와 커브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 8일 경기에서도 커브와 포크 하나씩 구사했다.
정해영은 "스플리터와 커브 연습을 하고 있다. 왼손 타자한테는 슬라이더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스피리터 등을 써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7일에는 든든한 지원군도 생겼다. 입단 동기인 내야수 홍중표가 1군에 합류하면서 정해영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정해영은 "솔직히 동기 중에서 내가 제일 늦게 올 리올 줄 알았는데 뿌듯하다"며 "동기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같이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정해영

“그라운드 간절 ... 김호령은 정신 번쩍드는 경쟁자”

돌아온 이창진

허리통증으로 긴 재활의 시간
첫 경기 안타·8일엔 멀티히트
“경험 무기로 전진...기대해도 좋다”



첫 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한 이창진은 8일에는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창진은 "간절함"을 이야기했다.
이창진은 "작년에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간

절하게 할 마음이다"고 말했다.
"경쟁"은 이창진을 기를 키워준다. 김호령이 이창진을 더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창진은 "호령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자극이 됐던 것 같다. 몸을 만들면서도 집중하고 정신 반짝 차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서로 경쟁하다 보면 배울 점도 있고, 좋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야로 전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구를 판단하고 스타트를 끊는 데 부족함을 느꼈는데 화려보다는 스타트를 빨리해서 어려운 타구도 완벽하게 포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수비를 언급했다.
"변화"는 이창진의 숙제, "경험"은 이창진의 자신감이다.
이창진은 "지난해 변화구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타석에서도 변화구를 생각하면서 경기에 나서고 있다"며 "올 시즌 기대하셔도 된다. 지난해 경험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치로 크게 목표를 세운 건 없고 1군에서 야구하는 동안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최대한 이 생활 오래 즐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지략으로 연패 탈출할까

'K리그1' 12일 강원 원정...펠리페·엄원상 속도전으로 측면 돌파
'피돌이' 박진섭 감독 작전 기대...K리그2 전남 '멀티' 김한길 영입

3연패에 빠진 광주FC가 강원 원정에서 승점 사냥에 재시동을 건다.
광주는 오는 12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2020 하나원큐 K리그1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잘 달려오던 광주는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그리고 대구FC에 연달아 패했다. 앞선 대구전 2-4패로 광주 순위는 7위에서 8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세 경기에서 승점을 더하지는 못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대구와 경기에서는 두 명이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에도 적장도 인정한 투혼의 승부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펠리페가 머리와 발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시즌 첫 멀티골도 기록했다.
공수밸런스와 끈끈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순위 싸움을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하다.
이번 강원전은 1라운드 마지막 경기다. 8위 광주(3승 1무 6패-승점10)와 11위 성남FC(2승 3무 5패-승점9)의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는 상황. 최대한 격차를 벌여야 한다.
현역시절 '피돌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박진섭

감독의 '피'가 필요하다.
지난 대구전에서 이민기와 여봉훈이 나란히 레드카드를 받았다.
또 사후 징계로 윌리엄스 퇴장 징계 중이라 광주는 '퇴장 악재'를 만났다.
박진섭 감독은 김효기, 임민혁, 최준혁 등을 활용해 전력 누수를 막게 된다.
또 광주는 멀티골로 페이스를 끌어올린 펠리페를 중심으로 엄원상, 김정환의 스피드로 측면을 뚫을 계획이다.
중원에서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필드를 장악하고 있는 여름과 박정수 등이 있다.
강원은 김병수 감독이 구축한 패싱축구를 바탕으로 한 '병수볼'로 눈길을 끈다.
조재완을 비롯해 고무열, 김승대, 김지현, 한국영 등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온 선수들도 위협적이다.
하지만 강원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지면서, 3승 2무 5패(승점 11)로 광주의 추격을 받고 있다. 특히 앞선 4경기에서 3득점 11실점으로 공수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모습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는 강원의 불안한 수비, 특히 역습에 취약한 강원의 수비를 뚫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역대전적에서도 5승 7무 3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연패에서 벗어난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연승을 노린다.
6경기 무패 질주 뒤 첫 연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앞선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4-0 승리를 거뒀다. FA컵 경남FC와의 경기에서 이어 두 경기 연속 4-0 승리를 만들면서 화력이 뜨겁다.
올 시즌 전남의 새얼굴이 된 줄리안의 활약 속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한 전력 보강도 성공적이다. 뒤늦게 전남 유니폼을 입은 올렉과 김현욱, 임찬율이 만점 활약을 하면서 반전의 두 경기를 만들었다.
12일 오후 7시 FC 안양과의 원정경기를 앞둔 전남은 9일 추가 영입을 발표했다.
전남은 최근 FC서울과 계약을 해지한 측면 멀티플레이어 김한길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김한길은 측면 수비와 측면 미드필더, 측면 공격까지 번갈아 맡을 정도로 다재지능한 재능을 가졌다. 2017년 서울을 통해 프로 무대를 밟았고, K리그 통산 39경기에서 나와 1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새 자원들로 전력을 채운 전남이 연패 뒤 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소, 독일 분데스리가로 돌진

황희찬, RB 라이프치히와 5년 계약...구단, 홈피에 영입 공식 발표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잘츠부르크에서 맹활약한 '황소' 황희찬(24)의 빅리그행이 확정됐다. 새 동지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히다.
라이프치히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황희찬의 이적료는 1500만 유로(약 20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치히는 2019-2020시즌 총 34골을 터뜨리고 잉글랜드 첼시로의 이적을 확정된 티모 베르너의 대체자로 황희찬을 선택했다.
라이프치히는 황희찬에게 베르너의 등 번호였던 '11번'을 배정키로 했다. 황희찬은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11번, 잘츠부르크에서 9번을 달고 뛰었다.
마르쿠스 코피세 라이프치히 단장은 "측면과 중앙, 어느 공격 포지션이든 뛸 수 있고 스피드에 활동량까지 갖춘 황희찬은 우리 공격을 더욱 유기적으로 전개해 줄 적임자"라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황희찬은 "라이프치히에서 새 도전을 펼칠 생각에 설렌다. 라이프치히의 야망과 축구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최대한 많은 골을 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희찬은 잘츠부르크에서 4시즌을 뛰는 동안 총 125경기에 출전해 45골(정규리그 28골-컵대회 6



골-유럽클럽대항전 11골)을 쏟아내며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상은 '빅리그' 클럽들이 그를 향해 군침을 흘리게 했다.
황희찬은 지난 10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세계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피르질 판데이크를 발제간으로 농락하고 골을 터뜨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황희찬의 활약에 잘츠부르크와 같이 세계적인 음료 회사 '레드불'을 '본사'로 둔 라이프치히가 관심을 보였고, 결국 황희찬의 독일행이 성사됐다. /연합뉴스